

# 북한 제9차 당대회 평가: 정치 전반

이상근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kuhnlee@naver.com

## I. 머리말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5,000명의 대표자와 2,000명의 방청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제9차 당대회의 첫 번째 안건은 제8차 당대회 이후 5년 동안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에 대한 총화(결산 및 평가)였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안건은 당규약 개정과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였다. 당대회 기간에 제9기 제1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제9기 제1차 정치국 회의도 열려 당 중앙위 선거에 따른 후속 인사와 당대회에서 채택할 결정서 초안 확정 등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 및 이와 연계된 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정치국 회의를 통해 중요한 정치적 결정들을 내린 것은 물론, 정치적 의미가 깊은 다양한 입장들을 표출하였다.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은 혁명전통의 계승성을 강조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선대 지도자들을 능가하는 지도자로 추켜세웠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하였으며,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고 2인자로 여겨지거나 부상할 수 있는 인물들의 역할도 조정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방도도 제시하였는데, ‘3대 혁명’을 강조하고 ‘전면적 발전기의 시대적 요구’도 제기하였다.

## II. 선대를 뛰어넘은 지도자로 김정은 위상 강화

### 1. 혁명전통 계승 입장 표명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표면적으로는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 건설 전략노선 등 선대의 유산과 혁명전통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제9차 당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북한 언론은 김정은 혁명사상을 끊임없이 주창하였고 관련 연구도 본격화하는 듯하였다.<sup>1)</sup>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 김정은 혁명사상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새 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당규약에 명기하였을 뿐이다.<sup>2)</sup> 김 위원장은 제8차 당대회와 마찬가지로 제9차 당대회에서도 개회사를 통해 당대회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철저히 충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함으로써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사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sup>3)</sup>

1970~80년대에 활발히 추진되었던 3대 혁명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전략적 노선이자 당의 총노선으로 규정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도 북한이 제9차 당대회를 통해 혁명전통을 계승 및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예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전 과정이 3대 혁명으로 일관되었고 3대혁명이 있었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을 포함하여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다그치는 오늘의 변혁투쟁”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 2. 김정은을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부각

이처럼 선대의 유산과 혁명전통을 이어가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북한은 제9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당에 드리워진 선대 지도자들의 후광을 걷어 내고 김 위원장을 능력과 업적 면에서 선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영도자로 추켜세웠다. 제9차 당대회에 참여한

1) 김치관, 「북, ‘김정은 혁명사상’ 체계화 진행 중 [초점] 북 사회과학원, 특별기고논문 11편 공개」, 『통일뉴스』, 2025. 5. 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61>, 검색일: 2026. 3. 9).

2)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규약 개정」, 2026. 2. 23.

3)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조선중앙통신』, 2026. 2. 20.

4)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결론」, 『조선중앙통신』, 2026. 2. 24.; 『조선중앙통신』, 「불굴의 개혁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2026. 2. 26.

간부들은 김일성-김정일 배지(초상휘장)가 아닌 김정은 배지(초상휘장)를 착용하였다. 제7차 및 제8차 당대회와 달리 제9차 당대회의 경우 김일성, 김정일 두 선대 수령에게 경의와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을 개회사에서 찾아볼 수도 없었다. 제9차 당대회 기간에 북한 언론과 간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역사상 최고의 업적을 쌓았다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그의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지난 5년과 선대 지도자들이 이끌던 시기의 북한을 비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을 총비서로 재선출하자는 제의서에 따르면, 그가 이끈 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5년간 북한의 전체 역사에 걸쳐 “있어 본 적이 없는 가장 크고 고귀한 공적”을 쌓았으며 “반만년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그리고 해방 후 75년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지난 5년간 추진된 사업들은 하나하나가 북한 정권 수립 이래 “근 80년에 달하는 기간 해내지 못한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과제들이었으며 세기와 세대를 이어 갈망하면서도 먼 앞날, 몇 대 후에 가서나 되리라고 생각했던 숙원사업들”이었다. 김 위원장의 업적 부각을 위해 선대 지도자들이 이끌었던 시기 북한의 현실은 “수십년 세월 지속되어 온 불균형적이며 비전형적인 질곡과 세기적인 락후성”으로 규정되었다.<sup>5)</sup> 김 위원장이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있는 지도자로 상찬받은 것은 물론이다.

더욱이 위 제의서는 김 위원장이 북한을 어떤 위협과 제재도 통하지 않고 어떤 세력도 건드릴 수 없는 국가로 만들었다며 “이는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지난 세기를 능가하는 역사적인 승리이며 과거와 오늘을 명백히 구획짓는 절대적인 변화”라는 주장도 담고 있었다.<sup>6)</sup>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일제로부터 북한을 해방했으며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북한을 지켰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김일성 주석을 역사상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 영웅으로 추앙해 왔다. 그런데 제9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국방 및 안보 관련 업적이 김일성 주석을 능가한다는 평가가 내려진 셈이다.

5)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와 관련한 제의서」, 2026. 2. 23.

6) 위의 글.

### III. 인사를 통한 당·군 장악력 제고<sup>7)</sup>

#### 1. 대규모 인사로 간부 물갈이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은 지난 5년간의 성과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을 거듭 표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년과 같이 간고하고 힘겨운 환경을 극복하며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라며 “정치와 경제, 국방, 문화, 외교를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당의 결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당대회에서 수립된 경제 분야 목표들이 미달되곤 했던 과거와 달리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기본적으로 완수되었고 “수도와 지방을 다같이 변모시키고 인민생활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대한 계획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8)</sup>

이처럼 제8차 당대회 이후 당이 추진한 과업들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작 이러한 성과를 도출한 간부들을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대거 교체하였다. 제8차 당대회와 제9차 당대회에서의 당 지도부 구성원들을 비교해 보면 당 중앙위원의 경우 139명 중 66명이 유임되었고, 19명이 후보위원에서 승격했으며, 54명이 새로 임명되었다. 신규 임명자와 승격자를 합하면 당 중앙위원 중 73명이 교체되어, 교체율은 약 53%에 달한다. 당 중앙위 후보위원의 경우 111명 중 유임이 23명, 위원에서 강등된 경우가 3명인 데 반해 신규 임명자가 85명으로, 신규 후보위원의 비율이 77%나 된다. 당 중앙위 위원과 후보위원 250명 전체를 놓고 보면 제8차 당대회와 비교해 56%가 교체되었다. 당 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 중 66%가 교체되었던 제8차 당대회에 비해서는 교체율이 낮으나 지난 5년간의 당 사업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의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치국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어 구성원의 43%가 교체되었다. 4인으로 구성되었던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경우 최룡해가 퇴임하고 김재룡과 리일환이 진입하면서 5인 체제가 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하면 제8차 당대회 당시 구성된 정치국의 상무위원 중 9기에도 유임된 인물은 조용원뿐이다. 10년 전에 열린 제7차 당대회 당시와 비교하면 김정은 위원장 외에는 모든 상무위원이 물갈이되었다. 제8차 당대회 당시의 정치국 위원

7) III장의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공보」, 2016. 5. 10.;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에 관한 공보」, 2016. 5. 10.;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공보」, 2021. 1. 11.;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 공보」, 2026. 2. 23.;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 관한 공보」, 2021. 1. 11.;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 관한 공보」, 2026. 2. 24.; 김인태, 「북한 제9차 당대회의 노동당 지도기관 및 권력엘리트 분석」, 『INSS 전략보고』, 제373호, 2026. 3.

8)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한 개회사」, 『조선중앙통신』, 2026. 2. 20.

및 후보위원 30명 중 9기 정치국에 남아 있는 인원은 11명뿐이다. 5년 사이에 정치국 구성원 중 무려 63%가 교체된 것이다. 제7차 당대회 당시의 정치국 구성원 30명 중 제9차 당대회까지 남아있는 인원은 김정은, 노광철, 리영길 3인뿐이다. 10년 사이에 90%가 바뀐 것이다.

한편 당 중앙위 부장 중에는 59%가 교체되었다. 새로 구성된 비서국의 비서 중 김정은 총비서를 제외하면 제8차 당대회 당시에도 비서직에 있었던 인물은 리일환 단 1명이다. 현재의 비서에 해당하는 제7차 당대회 당시의 정무국 부위원장 중에는 9기 비서국의 비서로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제8차 당대회 당시 임명되었던 13명의 당 중앙군사위 구성원 중에서도 제9차 당대회에서 다시 이름을 올린 인물은 김정은 위원장 외에 정경택과 리영길뿐이다. 김 위원장을 제외하면 제7차 당대회 당시의 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 중 제9차 당대회까지 남아있는 인물은 리영길 뿐이다.

## 2. 김정은시대 인물들로의 세대교체

제8차 당대회에 이어 제9차 당대회에서도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지난 5년간의 당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당·정 간부들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과 불신이 여전하기 때문인 듯하다. 김 위원장은 제9차 당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해서도 “당, 정권기관들과 일군들의 사업에는 뿌리깊은 패배주의와 무책임성, 보수주의와 형식주의, 지도능력의 미숙성과 같은 심각한 결점들과 부정적 요소들이 적지 않게 내재”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당과 국가사업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난관”이라고 평가하였다.<sup>9)</sup> “당과 국가가 현대적인 생산기지, 봉사기지들을 새로 꾸려준 지 1년도 못 되어 관리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지도통제도 소홀히 하는 극도의 태만과 무책임성” 등을 지적하며 지방간부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sup>10)</sup>

간부들의 자질과 태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이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대규모 인사를 촉발한 듯하다. 제9차 당대회를 통해 70대 이상의 고령자 대부분이 정치국과 비서국에서만 아니라 당 중앙위원회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당의 원로들이 2선 후퇴가 아니라 완전 퇴진을 하게 된 것이다. 반면에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인사를 통해 실무 역량이 높다고 평가되는 비교적 젊은 인물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세대교체가 단행되었다. 그 결과 최룡해, 리병철, 김영철 등 혁명 2세대를 비롯한 70대 간부들이

9)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조선중앙통신』, 2026. 2. 20.  
10)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결론」, 『조선중앙통신』, 2026. 2. 24.

대부분 퇴진하고 50~60대의 제3세대가 북한 정권의 주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8차 당대회에 이어 제9차 당대회에서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진 결과,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인물들은 당 지도부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빈자리는 김재룡, 리일환을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탁한 인물들로 채워졌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자기 사람들’로의 물갈이를 통해 당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높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 3. 군부 위상 약화 및 군대에 대한 통제 강화

제9차 당대회에서 이루어진 인사의 특징 중 하나는 당 지도부 내에서 군부 인사들의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제7차 당대회 당시 황병서가, 제8차 당대회 당시 리병철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었던 것에 비해 제9차 당대회에서는 군 출신 인사가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당 중앙위에 진입한 군 출신 인사의 수는 제8차 당대회 당시와 비슷한 듯하다. 그러나 제8차 당대회 당시에는 군단장급 인사들이 중앙위 위원이었던 데 반해 제9차 당대회에서는 후보위원이 되는 데 그쳤다.

군 출신 인사들의 위상과 입지가 전반적으로 약해진 가운데 병력을 직접 통솔하지 않는 군수 담당자들과 정치간부들은 상대적으로 견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핵을 비롯한 군수 분야를 담당하던 간부 중에는 고령의 리병철, 홍승무가 물러났을 뿐 조춘룡, 김정식, 고병현, 장창하, 강경호, 유진, 허철용 등이 9기 당 중앙위에 포진하였다. 정치간부들의 경우에도 총정치국장이었던 정경택이 군정비서 및 정치국 위원이 되었고 총정치국 부국장이었던 김성기가 총정치국장 및 정치국 위원이 되었다. 중앙군사위원이 된 유광우도 정치간부 출신인 것으로 보인다.

군부 인사들, 특히 병력을 직접 통솔하는 간부들이 당 지도부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은 당 운영 및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에 군대의 영향력이 미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근년에 북한군은 막강한 핵 전력 및 재래식 전력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은 물론, 대규모 건설사업들을 주도하면서 경제적 역할도 증대시키고 있다. 러시아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파병 군인들을 영웅시함에 따라 군대의 사회적 위상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흐름이 군대의 정치적 발언권 증대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인 것으로 보인다.

군 정치간부들의 상대적 부상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담당하던 인사들을 당과 군의 상층부로 끌어올림으로써 이들을 통해 군대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제9차 당대회를 통해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고 군대를 철저히 당의 정책 집행을 위한 수단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인사가 단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최측근 인사 이동: 조용원과 김여정

후계자 이외에는 2인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유일영도를 강조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이라고 하지만 장성택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도 2인자로 간주되거나 2인자로 부상할 여지가 있는 인물들은 존재해 왔다. 현재의 북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을 꼽자면 조용원과 김여정 정도일 것이다. 2인자로까지 보지 않더라도 이 두 사람이 고위인사 중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은 조용원을 조직비서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해임하였다. 정치국 상무위원 직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조용원은 은퇴하는 최룡해의 후임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용원은 조직비서와 조직지도 부장을 겸임하며 당 조직을 관리하였을 뿐 아니라 중앙군사위원회로서 군에 대한 통제에도 관여하였고, 김 위원장을 대신하여 정치국 회의 등 중요 회의들을 주재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2024년 1월 발족한 지방발전 20×10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를 “책임지고 지도”하는 등 당의 핵심사업들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sup>11)</sup>

1957년생으로 알려진 조용원이 다소 고령이기는 하나 그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로 옮겨 가는 것을 격무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배려 정도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당의 조직 부문을 오랫동안 장악하면서 여타 중요 업무들까지 관장함에 따라 조용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그가 비서와 중앙군사위원 직을 내려놓게 된 배경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김정은 위원장이 조용원의 직무를 변경함으로써 그의 당내 역할과 영향력을 축소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총비서의 업무를 일정하게 대행하던 조용원을 전보시키는 것은 김 위원장이 당을 더 직접적,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1) 『로동신문』, 「우리당 지방공업발전정책의 완벽한 시행을 위한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 사업에 착수」, 2024. 1. 30.

김정은 위원장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여정은 제9차 당대회에서 총무부장과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면서 공식적 지위가 높아졌다. 지난 3월 10일 김여정 명의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실시를 비난하는 담화가 발표된 것으로 보아 대남·대외 분야 스피커로서의 그의 역할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의 향후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으나 정치국 후보위원과 총무부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임명된 부장들 대다수가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총무부장이 된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이 된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다.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자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김여정이 제8차 당대회를 거치며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강등되고 정치국에서도 배제된 바 있으나 이후 김여정의 위상이 낮아지거나 역할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중요 일정에 동행했으며, 자신의 명의로 대미·대남 담화를 빈번히 발표하였고, 2025년 8월에는 외무성 주요 국장들에게 “국가수반의 대외정책구상을 전달·포치(하달)”하기도 하였다.

당에서의 공식 지위가 낮아졌던 시기에 김여정의 위상과 역할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처럼 공식 지위가 높아진 뒤에도 김여정의 위상과 역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총무부장이 된 뒤에도 김여정은 제9차 당대회 이전과 마찬가지로 특정 부서의 경계를 넘어 다방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김여정에게 총무부까지 맡긴 데에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 위원장은 김여정에게 당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맡김으로써 혈육을 통해 당을 구석구석까지 파악하고 관리하려는 듯하다. 다시 말해 김여정의 총무부장 임명도 당에 대한 자신의 장악력을 더욱 높이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 IV. 당의 정책 추진 역량 강화

### 1. 인적 개편과 조직·제도 정비

제9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를 이어가기 위한 방대한 계획들을 제시한 북한은 이러한 계획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앞에서 소개한 대규모 인사는 물론 조직 정비, 당규약 개정 등을 통해서도 당의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진 것으로 보인다.

제9차 당대회를 거치며 비서국의 비서가 7명에서 11명으로 증가하였고 비서 11명 전원이 전문부서 부장과 정치국원을 겸임하게 되었다. 이는 지휘 계통을 일원화하는 동시에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에게 권한과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당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려는 의도인 듯하다. 당규약 개정 내용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당 대열의 질적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보강하고 “당 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서 장, 조항의 일부 내용들을 개정하였다”라는 보도 내용으로 보아 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sup>12)</sup>

## 2. 홍(紅)과 전(專)의 결합 추구

북한은 통상적으로 사상적 각성을 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우곤 한다. 제9차 당대회에서도 이런 기조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상과 함께 전문성과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제9차 당대회에서는 3대 혁명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전략적 노선이자 당의 총노선으로 규정되고 다섯 가지 ‘전면적 발전기의 시대적 요구’가 제시되었다. 북한이 제9차 당대회에서 3대 혁명을 강조한 것은 3대 혁명이 사상혁명과 더불어 기술혁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질에 있어서 ... 온갖 낡은 것을 청산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인 듯하다.<sup>13)</sup> 다시 말해 북한은 사상적 각성과 함께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해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방대한 과업들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전면적 발전기의 시대적 요구’는 행동 통일 및 기강 확립, 새것의 부단한 창조와 혁신, 과학적·실리적 사업 수행과 전문가적 자질 중시, 생산과 건설의 지도방법 혁신 및 지휘능력 제고, 사상의 힘으로 만사를 해결하는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4)</sup> 이 역시 북한이 과학적 방법, 전문지식, 혁신을 사상 못지않게 강조했음을 알게 해준다.

제9차 당대회에서 사상과 함께 전문성, 과학, 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북한이 홍(紅)과 전(專)의 조화를 넘어 홍과 전의 결합 내지 융합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예컨대 북한은 “농업과학기술 성과도 농사의 주인인

12)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규약 개정」, 2026. 2. 23.

13)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결론」, 『조선중앙통신』, 2026. 2. 24.

14) 『조선중앙통신』, 「불굴의 개혁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출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2026. 2. 26.

사람의 정신력, 사상의 힘이 발동될 때 응당한 빛을 볼 수 있으며 ... 사상의 힘도 과학의 비상한 힘이 강력히 안받침될 때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다”라며 사상의 힘과 과학의 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5)</sup> 생산활동에 과학기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사상적으로 발동된 사람은 과학농사를 중시하고 ...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낡은 경험에만 매달리게 된다”는 식이다.<sup>16)</sup> 북한이 제9차 당대회에서 3대 혁명과 ‘전면적 발전기의 시대적 요구’를 내세우며 사상과 함께 기술, 과학, 전문성, 혁신을 강조한 것으로 볼 때 향후에도 홍과 전의 결합을 통해 당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발전을 추동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V. 맺음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선대 지도자들을 능가할 정도로 끌어올렸다. 또한 대규모 인사를 통해 세대교체를 이루고, 당과 군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장악력을 제고하려 하였다. 인적 개편과 조직 정비 등을 통해 당의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당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상의 개변과 함께 과학기술, 전문성, 혁신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제9차 당대회에서 내려진 결정들과 발신된 메시지들은 대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과 정권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만, 당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발전을 앞당기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들도 적지 않다.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대외적으로 다극세계 건설의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대내적으로도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를 이어가기 위한 방대한 계획들을 제시하였다. 대외 정세가 불안정하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북한은 제9차 당대회를 통해 지도자의 권위와 당의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5) 『로동신문』, 「농사는 사람이 짓고 과학이 짓는다 당의 은정어린 조치로 농업부문에 공급된 고효능천연식물활성제 《진심 1》의 도입과정을 놓고」, 2023. 7. 19.

16) 정성일, 「과학농사중시기풍의 확고한 우세를 실현하자」, 『로동신문』, 2023. 3. 23.

## 참고문헌

- 김인태, 「북한 제9차 당대회의 노동당 지도기관 및 권력엘리트 분석」, 『INSS 전략보고』, 제373호, 2026. 3.
-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조선중앙통신』, 2026. 2. 20.
- \_\_\_\_\_,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결론」, 『조선중앙통신』, 2026. 2. 24.
- 김치관, 「북, ‘김정은 혁명사상’ 체계화 진행 중 [초점] 북 사회과학원, 특별기고논문 11편 공개」, 『통일뉴스』, 2025. 5. 2.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361>, 검색일: 2026. 3. 9).
- 정성일, 「과학농사증시기풍의 확고한 우세를 실현하자」, 『로동신문』, 2023. 3. 23.
- 『로동신문』, 「농사는 사람이 짓고 과학이 짓는다. 당의 은정어린 조치로 농업부문에 공급된 고효능천연식물활성제 《진심 1》의 도입과정을 놓고」, 2023. 7. 19.
- \_\_\_\_\_, 「우리당 지방공업발전정책의 완벽한 시행을 위한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 사업에 착수」, 2024. 1. 30.
- \_\_\_\_\_,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공보」, 2016. 5. 10.
- \_\_\_\_\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에 관한 공보」, 2016. 5. 10.
- \_\_\_\_\_,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공보」, 2021. 1. 11.
- \_\_\_\_\_,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 공보」, 2026. 2. 23.
- \_\_\_\_\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 관한 공보」, 2021. 1. 11.
- \_\_\_\_\_,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 관한 공보」, 2026. 2. 24.
-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규약 개정」, 2026. 2. 23.
- \_\_\_\_\_,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와 관련한 제의서」, 2026. 2. 23.
- \_\_\_\_\_,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규약 개정」, 2026. 2. 23.
- \_\_\_\_\_,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2026. 2. 26.